

하나 글로벌 데일리



글로벌 지표

미국 / 유럽 증시 / 국제 유가

지 수		증가	1D(%)	1W(%)	YTD(%)
Dow	▲	35,160.8	0.7	1.7	(3.2)
S&P500	▼	4,459.5	(0.1)	0.3	(6.4)
NASDAQ	▲	13,453.1	(1.2)	(1.4)	(14.0)
STOXX50	▲	3,896.8	1.7	1.8	(9.3)
VIX	▼	20.3	(4.9)	(6.9)	18.0
WTI(원물)	▲	102.8	0.2	(1.4)	36.6
BRENT(원물)	▼	105.6	(0.4)	(2.9)	36.3
금	▲	1,957.8	0.4	(1.0)	7.0

전일 아시아 / 신흥국 증시

지수		증가	1D(%)	1W(%)	YTD(%)
KOSPI	▼	2,718.7	(0.0)	0.1	(8.7)
KOSDAQ	▼	928.9	(0.3)	0.2	(10.2)
일본(Nikkei)	▲	27,217.9	0.9	1.4	(5.5)
중국(상해종합)	▲	3,151.1	(1.4)	(1.1)	(13.4)
홍콩(H-Share)	▼	7,098.3	(1.0)	(3.0)	(13.8)
홍콩(항셍)	▼	20,944.7	(0.4)	(2.0)	(10.5)
대만(가판)	▲	17,148.9	0.9	(0.9)	(5.9)
인도(Sensex)	▲	57,037.5	1.0	(2.2)	(2.1)
인니(자카르타)	▲	7,227.4	0.4	(0.5)	9.8
베트남(호치민)	▼	1,384.7	(1.6)	(6.3)	(7.6)
러시아(RTS)	▲	960.4	3.1	(3.7)	(39.8)
브라질(Bovespa)	▼	114,343.8	(0.6)	(2.1)	9.1

Global Event Calendar (현지시각 기준)

일	주요 이벤트
21일 (목)	- 한 3월 PPI - 미 3월 선행지수
22일 (금)	- 미 Market PMI 제조업, 서비스업 - 일 3월 CPI
24일 (일)	- 프랑스 대통령 선거(결선투표) - 과기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시행

글로벌 증시

Global 증시 마감 사항

▶ 미국/유럽 증시

- 전일 미 증시는 실적장세 속 혼조 마감. 실적조조에 IBM(+7.10%) 및 P&G(+2.52%) 강세 마감한 반면, 가판자 수 감소에 넷플릭스(-35.12%) 급락하며 디즈니(-5.58%), 로쿠(-6.17%) 등 관련종목 약세
- 한편 연준은 배지자료를 통해 미 경제는 4월 중순까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지만, 물가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의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미래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진단
-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 외 전 업종 강세 마감

▶ 중국 증시

- 중국 본토증시는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자 실망감이 작용하며 하락 마감
- 업종별로는 호텔, 식품, 주류 강세. 석탄, 부동산, 철강 약세
- 홍콩증시 역시 하락 마감

Global Issue & News

▶ 연준, 경제 활동 보통 속도 확장 평가

- 연준은 배지자료에서 미국 경제 활동이 2월 중순 이후 보통 속도로 확장되었다며 이전 대비 경기 평가 상향 조정
- 소비지출은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가속화되었으나 제조업 활동 대다수 지역에서 견고했다고 평가
- 한편 여전히 공급망 병목현상, 노동력 부족, 비용 증가는 생산력 확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
- 물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이 보통 속도로 증가했다고 평가

▶ 주간 원유재고 -802만 배럴 감소

- EIA 주간 원유재고는 -802만 배럴 감소 하며 시장 예상치와 달리 큰 폭 감소. 휘발유 재고는 -76.1만 배럴 감소, 정제유 재고는 -266.4만 배럴 감소
- 주간 미국 정유 설비 가동률은 전 주 대비 +1%p 상승한 91.0% 기록
- 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감소 및 독일의 러시아 유 수입 중단 발표에 소폭 상승

▶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석달 연속 동결

- LPR은 중국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의 평균치로, 인민은행은 매달 20일 LPR을 고시해 전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음
- 이번달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을 전달과 같은 3.7%로 고시
-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도 전달과 같은 4.6%로 집계

▶ 중국경제 둔화 속 위안화 가치 6개월만에 최저

- 블룸버그에 따르면 위안화 가치는 19일 뉴욕시장에서 한때 0.7% 하락한 달러당 6.4221위안을 기록
- 중국 경제 둔화 우려와 미 국제 금리 상승이 위안화 가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
- 전문가는 '앞서 인민은행이 내놓은 23가지 금융 지원 대책은 중국이 성장 여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

글로벌 업종/종목 퍼포먼스

미국 / 중국 / 유로존 (GICS Lv.1)

가별	산업별	증가	1D(%)	1W(%)	1M(%)
미국	에너지	313.9	0.4	2.6	9.3
	소재	408.5	0.7	2.9	5.4
	산업재	389.7	0.5	2.6	(1.1)
	경기소비재	593.2	(1.5)	2.6	(0.5)
	필수소비재	321.1	1.5	2.8	8.8
	헬스케어	450.7	1.3	1.1	2.5
	금융	203.1	0.8	1.7	(2.9)
	IT	593.1	(0.4)	0.9	(3.7)
	커뮤니케이션	71.8	(4.1)	(2.8)	(5.8)
	유틸리티	225.2	0.9	0.8	9.1
중국	부동산	1,463.3	2.2	1.8	5.3
	에너지	451.4	(3.7)	(5.0)	9.8
	소재	1,051.8	(4.5)	(5.3)	(3.2)
	산업재	118.1	(2.5)	(4.1)	(8.6)
	경기소비재	179.6	(1.2)	(4.6)	(5.8)
	필수소비재	1,557.6	1.2	(0.8)	(1.6)
	헬스케어	202.9	(0.8)	(2.2)	(3.3)
	금융	412.7	(1.4)	(4.0)	(2.9)
	IT	652.2	(1.6)	(1.7)	(12.7)
	커뮤니케이션	108.2	(1.1)	(4.1)	(6.1)
유로존	유틸리티	642.7	(0.6)	(2.0)	0.2
	부동산	971.6	0.0	(3.0)	4.3
	에너지	144.7	(0.6)	3.2	11.7
	소재	359.6	(0.6)	0.4	2.7
	산업재	306.5	1.7	2.4	(4.4)
	경기소비재	189.4	1.2	2.2	(2.0)
	필수소비재	295.4	0.8	(1.1)	2.1
	헬스케어	269.2	(0.5)	(3.6)	5.4
	금융	64.4	1.6	0.7	1.1
	IT	159.0	2.8	3.1	(3.8)
유로존	커뮤니케이션	56.4	(0.2)	0.2	3.3
	유틸리티	142.5	1.2	(0.0)	4.8
	부동산	802.2	0.7	(1.1)	(5.6)

미국 / 중국 전일 추가 상승종 상위 16 종목

지수별	티커	종목명	증가	1D(%)	1W(%)	1M(%)
S&P500	FTI	테크니컬PMC	8.9	1.5	11.6	21.6
	TWTR	트위터	46.7	1.2	5.0	23.7
	SYF	싱크로니 파이낸셜	40.5	(0.5)	9.8	7.7
	VLO	발레로 에너지	108.1	0.3	7.2	19.5
	PSX	필립스 66	88.9	(0.8)	8.4	12.8
	COF	캐피탈 원 파이낸셜	141.9	0.2	7.3	2.6
	DFS	디스커버 파이낸셜	118.8	0.1	6.3	2.6
	OXY	옥시덴탈 페트로리움	61.5	1.8	3.9	9.3
	BAC	뱅크오브아메리카	39.7	0.2	1.3	(7.6)
	MPC	매러신 페트로리움	91.0	0.6	6.0	16.2
	FCX	프리포트 맥모란	49.9	(1.5)	4.0	3.8
	NOV	NOV	20.1	(1.1)	2.7	4.1
	LRX	램리서치	481.5	0.5	3.1	(11.6)
	MCHP	마이크로칩	69.2	0.4	5.6	(10.5)
	NUE	뉴코	169.3	(1.5)	7.6	24.3
	MOS	모자이크	75.8	(2.8)	0.4	22.1
CSI300	002463	WUS 인쇄 회로 콘산	12.5	2.0	15.3	(10.6)
	300142	원선 생물기술	57.1	(2.1)	12.7	(4.7)
	300628	Yealink Network	77.6	(0.5)	(1.3)	(1.0)
	688036	Shenzhen Transion	89.5	1.2	4.0	(11.0)
	300408	자오저우 완한 집단	28.2	1.3	4.5	(4.7)
	600522	장쑤 중텐 기술	14.7	(3.9)	(1.2)	(18.8)
	000961	장쑤 중난 건설집단	4.1	(7.5)	(1.0)	8.2
	300498	원산 식품집단	21.8	(3.8)	3.1	3.3
	601877	저장 칩트 전자	33.7	(2.9)	1.2	(23.0)
	603986	Semiconductor Beiji	133.5	(1.3)	8.3	(16.2)
	600011	화남국제전력	6.7	(0.3)	6.7	(16.4)
	603501	Will Semiconductor	159.7	(2.9)	(5.5)	(28.1)
	002714	Muyuan Foods Co Ltd	57.1	(0.6)	6.7	4.0
	000876	신시앙 류어	16.4	(2.3)	6.1	5.2
	002415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기술	41.6	0.1	7.4	(2.0)
	002371	나우라 테크놀로지	262.6	(0.8)	8.6	(16.2)

미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티커	종목명	신고가(USD)
CAH	카디널 헬스	64.2
WEC	WEC 에너지 그룹	106.0
PKG	패키징 코퍼레이션	167.8
ED	콘솔리테이티드 에디슨	99.2
XEL	엑셀 에너지	75.8
K	켈로그	69.0
FE	퍼스트에너지	48.6
UNM	유넬그룹	34.0
KMI	킨더 모건	20.0
AKAM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122.6

중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티커	종목명	신고가(CNY)

ETF 퍼포먼스

업종별 ETF

종목명	증가	1D	1W	1M
필수소비재(XLP)	80.6	1.5	2.8	8.8
자유소비재(XLY)	181.8	-1.3	3.2	2.0
금융(XLF)	37.9	0.7	0.4	-2.6
IT(XLI)	149.7	-0.1	0.8	-1.5
헬스케어(XLV)	140.3	1.3	0.2	3.0
원자재(XLB)	90.6	0.6	2.9	5.8
에너지(XLE)	80.7	0.4	4.6	9.1
유틸리티(XLU)	76.8	0.8	1.2	7.5
통신(XLC)	64.7	-4.3	-3.8	-4.0
산업재(XLI)	102.0	0.5	2.7	-0.5
반도체(SMHI)	247.0	-0.2	2.4	-6.3
은행(XBE)	51.5	0.8	3.6	-5.8

스타일, 자산별 ETF

종목명	증가	1D	1W	1M
성장주(VUG)	272.9	-1.1	0.2	-1.0
가치주(VTV)	150.8	0.8	1.7	2.5
선진국(EFA)	72.4	0.7	0.4	-0.9
신흥국(EMC)	53.9	-0.5	-1.5	-2.0
채권종합(ACG)	103.6	0.6	-0.6	-3.9
국채(GOVT)	24.3	0.5	-0.4	-3.4
장기국채(TLT)	121.7	2.0	-1.2	-7.7
물가채(TIP)	121.4	0.7	0.0	-4.5
IC화사채(LQD)	114.8	1.0	-1.1	-5.6
HY회사채(HYC)	80.3	0.3	0.8	-2.4
리츠(VNO)	112.5	1.7	3.6	5.7
한국(EWY)	69.6	0.6	1.7	-2.2

테마별 ETF

종목명	증가	1D	1W	1M
친환경(ICLN)	20.7	-1.8	-1.5	-1.9
핵심산업(ARKK)	56.1	-5.9	-6.2	-10.8
우주항공(UFO)	24.8	-1.2	0.2	-1.7
클라우드(SKYY)	83.5	-2.2	-1.6	-2.7
온라인스마트(ONLN)	42.2	-4.2	-3.8	-7.4
ESG(ESGU)	99.4	-0.1	1.0	0.6
생명공학(BB)	129.0	0.5	-1.0	0.3
엔터&레저(PEJ)	47.2	-1.1	2.9	0.9
핀테크(ARKF)	24.8	-5.5	-5.8	-11.7
전기차(IDRV)	43.6	-0.2	2.5	-2.6
AI, 로봇(ARKQ)	62.7	-2.0	-1.2	-3.3
농업(MOON)	108.3	0.5	1.5	7.3



미국(선진국)

테크 / 플랫폼

▶ 테슬라(TSLA.US): 1분기 실적 발표

-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시장외거래 4.3% 상승
- 출하량 증가와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이 매출 성장 견인
- [분기 실적(YoY)] 매출액 187.6억 달러 +81%(vs.시장예상치 178억 달러 상회), EPS 3.22 달러 (vs.시장예상치 2.26 달러 상회), 매출총이익 54.6억 달러 +147%(CPM 29.1%), 영업이익 36.0억 달러 +507%(OPM 19.2%)
- [세부 실적(YoY)] 오토모티브 부문 매출 168.6억 달러 +87%, 매출총이익 55.4억 달러 +132%(CPM 32.9%) / 출하량 310,048대 중 모델 3/7가 295,324대로 95% 차지
- 지정학적 이슈로 생산은 제한된 수준에서 재개되고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공급망을 가동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고

▶ 아마존(AMZN.US): AR 제품 개발

- 아마존은 AR/VR 제품 개발을 위해 인재들을 고용하기위해 노력 해옴
- AR과 VR뿐만 아니라 둘을 포함하는 확장 개념인 XR 관련 연구를 위함
- 또한, UX 디자인을 고용하여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에서 3D AR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핵심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작업을 지원할 예정
- 시장 내 닥 빅테크 경쟁사와는 달리 아마존은 AR과 VR 하드웨어 관련여야 크게 관심을 쏟지 않았지만 향후 R&D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장을 위한 것으로 전망

소비재 / 헬스케어 / 금융

▶ 트래블러스 컴퍼스(TRV.US):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

-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트래블러스는 1분기 순이익이 10억2천만 달러(주당 4.15달러)로 집계.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7억3천300만달러(주당 2.87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것
-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4.22달러로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3.61달러를 크게 웃돌았음. 재해 비용이 같은 기간 1억 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8억 3천5백만 달러에서 크게 하락. 산업 전반의 재해가 줄어 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지난해 1분기의 경우 겨울 눈 폭풍이 미국을 강타하면서 상대적으로 재 해 비용이 크게 늘어난 바가 있었음
- 분기 매출은 88억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83억1천300만달러보다 6% 증가
- 손해악보료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83억6천7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 트래블러스는 기관을 상대로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가장 큰 보험사 중 하나로 개인에게는 자동차 및 주택보 험도 판매
- 트래블러스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된 회사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주요 보험사
- 웰스파코증권은 올해 1분기 유럽 내 폭풍, 일본 지진, 호주 홍수 등 재난재해로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재해 손실액이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또한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으로 장부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
- 트래블러스는 분기 현금 배당을 6% 인상한 주당 93센트로 높였다고 말함. 트래블러스는 18년 연속 분기 배당을 인상

산업재 / 에너지 / 통신 / 리츠

▶ 보잉(BA.US) 787 Dreamliner 인도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될 가능성

- 보잉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787 Dreamliner의 인도가 하반기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작년 5월 이후 인도가 중단되면서 보잉의 현금보유고 및 항공사들의 운항 캠페에 압박 요소로 작용해 왔음
- 인도 재개는 보잉의 점진적 생산량 확대 계획 수립에도 중요한 소식이며, 공급망을 지탱하는 데에도 필 수적
- 기존에 설정된 목표 인도 시점은 4월이었으나 규제 기관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항공기 100기 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수리를 진행함에 따라 이미 5월로 미루어진 바 있음
- 보잉은 정확한 인도 재개 시점에 대한 전망을 중단한 상태. 내부 관계자는 올해 3분기가 현실적인 목표 라고 언급

▶ 유나이티드항공(UAL.US) 1분기 실적 발표

- 유나이티드항공의 1분기 매출액과 조정 EPS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였으나 2분기 및 연간 흑자 전환을 전망하면서 애프터마켓 추가 강세
- 갤런 당 연료비용 2.88 달러(vs. 1Q19 2.05 달러, 1Q21 1.74 달러), 연료비 제외 비용 +18% (vs. 1Q19)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및 항공편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커버함에 따라 흑자 전환 예상
- 대형기인 보잉 777 52기가 지난해 2월 연간 결산 발견 이후 최소 올해 5월 중순까지는 운항이 불가능 한 점과 787 인도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여름철 캠페에 대한 우려 요소
- [1분기 실적] 매출액 75.7억 달러(-21.1% vs. 1Q19/ 컨센 76.8억 달러), 당기순이익의 -14억 달러, 조정 EPS -4.24 달러(vs. 컨센 -4.22 달러), 운항 캠페 81% 회복
- [부문별 매출(1Q19 대비)] 여객 -27.2%/ 화물 +119.2%/ 기타 +2.2%
- [지역별 여객 매출(1Q19 대비)] 국내선 -16%/ 라틴 아메리카 -11.7%/ 유럽 -50.2%/ 중동&인도&아프 리카 +15.5% / 태평양 -79.8%
- [2Q22 가이던스] 역대 최대 수준 매출액 & 순이익 흑자 전망. 운항 캠페 87% 회복, 영업이익 마진 10%, 좌석당 매출액 +17%(vs. 2Q19), 연료비 제외 비용 +16%(vs. 2Q19)



중국

IT / 플랫폼 / 반도체

▶ 바이두(BIDU.US): 지주자회사 로봇차량 차체 일부분 디자인 공개

- 최근 바이두에서는 차도협동 플랫폼 2.0인 '개로' 런칭
- 이는 도로 양측의 차량감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클라우드 등 3가지 분야 포함
- 18일, 지주자회사는 첫 로봇 차량의 차체 일부분 디자인 공개. 차체 앞부분에 라이다 탑재

▶ 알리바바(BABA.US): 알리바바 클라우드 글로벌 시장점유율 10%

- 15일 Gartner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0년 909억달러로 YoY +41% 증가
-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시장점유율은 아마존 39%, 마이크로소프트 21%에이은 3위로 10% 차지. 텐센트는 6위로 3% 기록
- 아마존의 클라우드 점유율은 소폭 하락. 알리바바 클라우드 점유율은 지속 성장중이며 지난 5년간 시장 점유율 3배 성장

▶ Desay SV(002920.CH): 지속적인 스마트 전장화 추세가 견인 중인 실적 성장

- 중국 내 스마트 전장 부품과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2021년부터 디세이는 사업부를 스마트 캐빈, 자율주행 부품, 차량 인터넷 서비스 3개 부문으로 재정비했음. 2021년 연간 총매출액 96억위안 중 스마트 캐빈 시스템/자율주행 부품 매출은 79억위안/14억위안으로 YoY +34%/+95% 고성장했고, 연간 신규 수익액은 120억위안 이상으로 YoY 80% 고성장을 실현. 스마트 전장 부품의 핵심 고객사인 사요펑과 리오트 외에 Lotus와 PSA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며 고객사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상위 5 개 고객사의 매출 비중은 2017~2020년 평균 55%에서 2021년 50% 수준으로 낮아짐
- 스마트 캐빈 사업 부문은 콕핏 플랫폼 기반의 차량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 모듈/시 스템, LCD 계기판 등 제품이 포함. 2021년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 및 시스템 매출액은 신규 수주 규모가 기존 핵심 고객사인 사요펑과 동평닛산의 수주액을 넘어서며 YoY 10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
- 자율주행 부품 사업부문에는 IPU 모듈, 자율주행기술(AVP), T-BOX, V2X, 밀리미터파 레이더, 카메라 등 제품이 포함되며, 2021년 신규 수주액은 40억위안 이상을 달성. 77C는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대규모 양 산 단계에 들어섰고, IPU 모듈은 사요펑의 P7과 P5 모델에 'IPU03' 제품이 탑재되고 있고, 올해부터 엔비 디아 Orin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한 'IPU04' 제품이 리오트의 신모델에 탑재되며 매출액에 기여할 전망

소비재 / 헬스케어

▶ 로보틱스(002508.CH): 1Q22 순이익 YoY +3% 증가

- 2021년 연간 매출액 102억위안으로 YoY +25% 증가, 순이익 13억위안으로 YoY -23% 감소
- 1Q22 매출액 21억위안으로 YoY +9% 증가, 순이익 4억위안으로 YoY +3% 증가
- 로보틱스 주방 가진 오락인 채널에서 시장점유율은 30%로 업계 1위
- 로보틱스는 2022년 4월 스톡옵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당사는 전체 발행 주식의 0.5%를 직원285명에게 배분할 예정이며, 동시에 향후 3년간 매출액 성장률은 15%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내세움

▶ 마오타이(600519.CH): 직영 채널 개설 20일 후, 비전모태주 가격 안정

- 마오타이 오락인 직영 채널 개설 20일 경과, 오락인 채널 개설 영향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핵심 제품 비전모태주 가격은 2800위안대로 안정. 신제품 마오타이1935 또한 1550~1650 사이로 안정
- 18일까지, 마오타이에서는 총 2.5만병을 판매했으며, 오프에 참여한 횟수는 총 1.3회외로 집계
- 마오타이는 마오타이를 통해 신제품을 육성하고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음

전자기 / 신에너지

▶ CATL(300750.CH): 1Q22 실적 어닝 쇼크 루머 확산으로 4/20 추가 급락

- 중국 시장에서 CATL의 1Q22 실적 어닝 쇼크 루머가 확산되며 4/20 CATL 추가 -7.55%로 급락 마감
- 4/20 추가 급락을 야기했던 루머는 CATL의 1Q22 순이익이 예상치 50억위안보다 하회할 예정이며, 탄 산리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고객사에 전가시키는 것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 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음
- CATL은 4/21 저녁에 2021년 연간 실적, 4/27에 1Q22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

▶ 양광전력(300274.CH): 4Q21 어닝쇼크 및 4/22 대주주 보호예수물량 해제로 추가 급락

- 중국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2위 제조사이자 ESS용 컨버터 1위 제조사인 양광전력의 4Q21 매출액은 87.6억위안(YoY +19%, QoQ +22%), 4Q21 지배주주 순이익 0.8억위안(YoY -90%, QoQ -90%)으로 매 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으나,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
- 동기간 원재료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4Q21 매출원가율 86.8%로 전년대비 7.1%p 상승하며 4Q21 GPM 13.2%를 기록으로 최근 5년래 최저 수준. 해외 판매 채널 구축 가속화로 판매 직원 임금 및 유지보수 비 증가하며 4Q21 판매비용율 9.5%로 전년대비 5.1%p 상승하며 4Q21 영업손실 1.5억위안 기록. 해외 발전소의 전력량 연계 지연으로 미수금 증가와 일부 ESS 프로젝트 인도(Delivery) 지연 등으로 인해 4Q21 손상자산 및 대손상각비 2.2억위안 계상되며 4Q21 NPM 0.9%로 전년대비 9.4%p 하락
- 1Q22 매출액은 45.7억위안(YoY +36%, QoQ -48%), 1Q22 지배주주 순이익 1.4억위안(YoY +6%, QoQ +428%) 기록
- 4Q21 어닝 쇼크와 4/22에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2.8천만주 대주주 보호예수물량이 해제되는 점 으로 인해 4/20 추가 하한가 마감



투자유망종목

투자유망종목 Weekly (4/20~4/26)					
종목	코드	시총(조)	변입일	1D(%)	누적(%)
애플	AAPL.US	3,368	1/26	(0.10)	3.47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2,649	2/9	0.37	(4.85)
월마트	WMT.US	542	1/26	1.26	13.86
일라이 릴리	LLY.US	344	4/13	(1.38)	(5.19)
캐터필러	CAT.US	155	3/16	1.26	9.1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	63	4/13	(2.70)	2.72
뉴코어	NUE.US	56	4/20	(1.50)	(0.63)
발레로 에너지	VLO.US	55	1/5	0.31	40.10
델타항공	DAL.US	34	4/13	1.16	13.95
완커	000002.CH	42	4/13	(6.34)	(4.07)



추천 ETF

분류	종목코드(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주식형	XLK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대형 기술주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장 영향이 정점을 지나며 추가 방향 전환될 가능성. 이익성장과 펀더멘털이 우수한 대형 기술주에 관심
주식형	SPYD (SPDR Portfolio S&P 500 High Dividend ETF)	미국 배당주	최근 하락하는 금리가 유망하는 변동성 국면에서 안정적인 배당 확보가 가능
주식형	AWAY (ETRMG Travel Tech ETF)	글로벌 여행주	글로벌 리프오픈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여행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
주식형	URA (Global X Uranium ETF)	글로벌 우라늄 관련주	차세대 자원으로 부각되는 친환경 에너지인 우라늄에 투자. 우라늄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기대